일 주 문



군종교구 JSA법당 낙성

정우 조계종 군종교구장은 3월 3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신축 법당 무량수전 낙성식을 개최한다. (02)749-8646



고은 시인 초청 특강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11~12일 해남 대흥사에서 고은 시인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061)534-5502



성남 분당서 경승실장 위촉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 스님은 3월 10일 성남 분당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김해경 경찰서장으로부터 경승실장으로 위촉받았다.



불교인재원 조사어록 대강좌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전법회관에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를 실시한다.



문화재돌봄협회 초대회장 선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3월 8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열린 문화재돌봄협회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교 혁신, 포교사들이 앞장설 것"



전국 5000여 포교사들이 한데 모여 불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3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4회 포교사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교사단은 포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정비 및 사회공헌 사업을 보다 활발히 펼칠 것임을 밝혔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0년 만에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어든 결과에 대해 종단의 포교사로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신행혁신운동과 결부해 1인 1수행법 갖기와 신도등록 활성화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촉 이승은 총무원 사회부 주임

이승은 총무원 사회부 주임은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 6층 나인하우스홀에서 신랑 윤강현 씨와 화촉을 밝힌다. (010)2113-3287

"군법당은 설법의 전당 관심 절실"

Interview

임관 1000일 맞은 최초 여성군종장교 명법 스님



장병 군생활 및 인생 상담 주력
승가대학 특강 및 경계부대 위문
"청년불자 양성에 보람 느껴요"

2014년 6월 27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창군 이후 최초의 여성 군종장교로 비구니 스님이 임관했다. 여성 군종장교 1호인 명법 스님이다. 스님이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활동한지 1,000일인 3월 15일 그동안의 군포교 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었지만 스님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놓지 않고 있다는 명법 스님은 그동안의 소회를 "뿌듯하다"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신교대 훈련병들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을 볼 때면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불자들인데 신심을 다해 잘해줘야겠다'는 마음만 있어요. 한해 두해 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군생활을 통하여 불심을 키우고 무사히 부모님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이 커졌습니다."

명법 스님은 특히 병사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법당에서 불교를 처음 접한 병사들에게 먼저 따뜻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 군생활과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다.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더군요. 가만히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스님의 마음씀씀이를 느껴서일까. 스님은 제대한 장병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비구니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스님은 "부대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당은 같다"며 "승가 대중생활 덕분에 군생활에 쉽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종장교를 꿈꾸는 스님들을 위해 승가대학 특강도 진행하고, 경계부대 위문을 비롯해 신병 면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 군종장교로서 군 내에 갖춰지지 못한 부분은 저를 비롯해 다른 선임 여성 군종장교들이 활동하다보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잘 자리잡고 있어 어려운 점은 없어요."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에 있는 명법 스님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고, 2년 연장 근무를 지원했다. 스님은 "보다 많은 청년불자들을 만나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법당 만큼 설법과 기도의 체계가 잘 잡혀 젊은 세대에게 포교를 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교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일선 법당은 불자간부들의 도움이 없이는 법회 준비부터 법당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군불교에 관심을 갖고 일선 군법당을 후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담 전문성 향상에 주력"

불교상담개발원 신임원장 가섭 스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사를 배출하는 불교계 대표기관, 불교상담개발원의 신임원장으로 가섭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3월 17일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이사회에서 신임원장으로 선출된 가섭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불교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장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불자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담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안암학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사관리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동안 상담개발원 출신의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소통을 통해 발전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가장 먼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개발원에 입학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사상에 기반한 상담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상담사를 배출하고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에 힘 쓰겠다. 특히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병행 개발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상담을 주제로 한 다른 불교계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접하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노덕현 기자**

"정신문화 발달에 기여"

이병호 24대 울산불교신도회장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신문화가 앞서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교사상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 울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울산불교신도회의 수장으로 이병호 한일전설 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

울산불교신도회가 3월 14일 울산MBC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한 제24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병호 신임회장은 "불법 홍포 사명을 바탕으로 울산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정토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정토사 신도회장으로 신도 조직화에 앞장서 왔다. 조계종 선혜 품계를 수지한 이 신임회장은 현재 울산 바둑협회 부회장, 충숙공 이예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임회장은 "울산은 경주에 버금갈 정도로 사찰 수가 많고 고승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며 "찬란한 불교문화가 사장돼 있다. 울산 불교문화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재직기념패 전달 △이임사 △추대패 및 회기 전달 △취임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법륜사 회주 눌암 스님, 망해사 혜학 스님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시장과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청호불교문화원 장학금 수여식



청호불교문화원(이사장 이종욱)은 3월 14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청호불교문화원 본원에서 제1회 청불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호불교문화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 국내 주요대학 학생 21명에게 1년 등록금 전액인 총 6,48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학생 네트워크인 청불회를 조직하고, 향후 장학생들의 사회활동도 힘써 돕기로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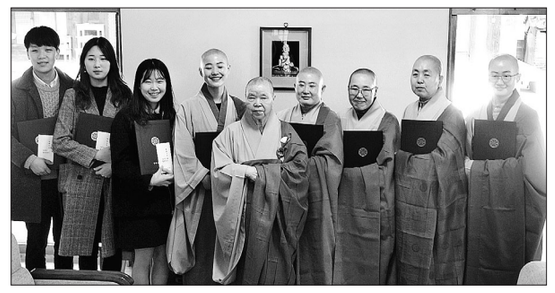
조계종 자원봉사단 연합행사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함결)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 연합행사를 개최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 중 1부에서는 2017년 신임봉사팀장 15명의 임명식을 비롯해 우수봉사자 208명에 대한 인증배지 수여식, 신규단원 환영식 등이 진행됐다. 또 복지백년발전위원회 위원인 호산 스님이 특별법문을 통해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운문사, 2017년 법계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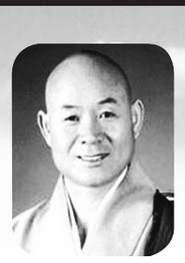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회 제15회 법계장학금 수여식을 3월 11일 거행했다. 이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전공 감로 스님과 동덕여자대 관현학과 이다은 학생 등 8명에게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전달됐다.

이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장학생들에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공헌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